

예배순서

*경배와 찬양	두 손들고 찬양합니다 / Highest Praise Winning All / Christ is Enough / 삶의 예배	다같이
대표기도		이중원
*성경봉독	약 3:1-6	박샤론
말씀	행함 "1" 허를 다스리라	김상범 목사
응답찬양	내 입술의 말과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목사
광고 및 환영		김동은
*파송찬양	하나님의 나라	다같이
*축도		김상범 목사

헌금안내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찬양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에 목상이
주께 열납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에 목상이
주께 열납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 마다
주의 종 되기 위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원하네

행함 "1" 허를 다스리라 (약 3:1-6)

1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행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행이 많이 되지 말라 2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3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4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5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오늘은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화) 이처럼 말은 그 내용보다도 전달방법, 서로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일찌감치 인식하고 강조해 왔습니다. '바바라 호버먼 레바인'이란 분이 쓴 『병을 부르는 말, 건강을 부르는 말』이란 책을 보면 어떤 말은 병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어떤 말은 병을 호전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우리의 말을 우리 몸이 듣고 그 말에 따라 우리의 면역체계와 세포까지 반응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만큼 우리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용기가 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하는 말에 관한 지혜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고보도 오늘 말씀에서 이를 강조합니다. 그는 앞 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어지는 행함의 첫 번째 주제로서 말 실수를 줄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그는 가급적 선행이 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선생에게는 심판 때 더 높은 잣대가 주어질 것인데, 선생이 되면 말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러면 실수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에 대해 주시는 우선적인 교훈은, 말을 적게 하라는 것입니다. (잠10:19)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은 결국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말씀들은 우리의 말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날카롭게 경고합니다. (시140:3, 시120:2-4, 잠16:27) 하나님의 창조물인 혀가 왜 이렇게 악독과 불이 가득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 해답은 창세기3장의 인간의 타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인간의 모든 영역이 타락하였는데, 그 중에도 말이 가장 먼저 타락했습니다. 그가 범죄하기 전과 후에 자기 아내에 대한 말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창2:23a, 창3:12) 타락은 타락을 불러옵니다. 그러자 하와와도 타락합니다. (창3:13b) 그들의 첫 아들 가인의 말도 역시 타락합니다. (창4:9b) 이처럼, 말의 타락은 인류가 타락하면서 함께 온 결과입니다. 말은 내 생각과 마음이 드러나는 창구입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해지다 보니, 악한 것들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말도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7-8절에서 인간이 다른 모든 생물은 다스려도, 혀는 못 다스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 하면 사람을 불태워 버릴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는 것과, 말을 통제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12:36-37) 그래서, 우리가 혀를 다스려야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 상처주지 않으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언젠가 그 말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권면대로 우리 입술을 통제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말들(horses)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큰 배에 키를 잡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그만큼 혀는 작지만 매우 중요한 기관인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가장 큰 특징은 '말을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언어 훈련을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봐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41편에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말이 나오려 할 때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공동체를 살리는 말인지 살펴보고 맞으면 나가게 하고, 아니면 멈추게 하는 역할을 파수꾼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살면서 말 하고나서 후회한 적 다 있었을 겁니다. 파수꾼이 우리 입술을 닫는 축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18:21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강조합니다. 즉,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살리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눅6:45) 그래서, 우리의 말을 바꾸려면 말만 바뀌어서는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내면과, 생각과, 심령이 새로워져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어 훈련은 언어만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채우는 생성 훈련도 함께 병행되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분의 말은 생명의 살리는 (life-giving)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걸린 여인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은 완전히 자포자기한 그녀를 다시금 살게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지혜의 근원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서 풍성하게 역사하시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산책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셋째,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합니다. 결국은 언어 훈련의 끝은 말씀 묵상으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에 목상이 주께 열납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말이 변하려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매일 묵상하고 암송한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상황이 되면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덧 우리 입에서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 중심적인 말들이 사라지고, 남을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난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도구인 우리 입술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Psalm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 질문

1.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면 나의 언어가 어떻게 변하리라고 예상되나요? 그러기 원하시나요?
2. 나의 말이 변하기 위해선 나의 내면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3.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내 입에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 본 경험을 함께 나눠주세요.
4.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삶에서 실천하기로 결심한 부분이 있다면 나눠 보세요.

성경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 웹사이트 방문과 페이지에서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파송찬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렵 사라져
내 안의 주의 나라 이루시네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광고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안내 및 협조부탁

청년부 예배는 오후 2시 찬양이 시작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가급적 5분전까지 착석하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과 조금 늦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뒷좌석 가운데쪽은
가급적 자리를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팀원 모집

라이드팀 - 청년부 예배 전/후 교회 라이드를 도와주실분들
(문의: 김윤환)

찬양팀 - 싱어, 건반, 드럼 (문의: 전승엽, 전하영) -----> 찬양팀 신청 QR

예배팀 - 음향/자막 팀원 모집 (문의: 박규상) -----> 예배팀 신청 QR

전교인 구약 통독

- 민수기 12장 - 신명기 3장

Arise 금요 찬양기도회

- 6월 7일(금) 오후 7시 30분, 분당

생명의 삶 6월호 판매 (권당 5불)

담임목사님 동정

- 담임목사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수술을 잘 받으셨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금요 Immanuel 기도회 참석 권면

-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동체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금요 기도회에 많은 청년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요~

다음학기 청년부 리더(목자, 팀장) 선발중입니다.

- 공동체의 영적 리더의 자리에서 책임감을 나누고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 추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현리더 및 차기회장단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 (목자, 부목자, 팀장, 팀원 등)

여름을 맞아 출타중인 목원분들께 따뜻한 안부 문자를 보내주세요

-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공동체에 함께 소속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나태해 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는 공동체가 되어요.

환송

- 김장명 형제

목자임명

- 학부목장 차기목자: 조민영 자매



예배팀 신청 QR

예배 / 모임

주일청년예배

주일 2pm

금요기도모임

금 7pm

청년목장

주중 또는 예배후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6:30am

토요무릎기도회

토 6:30am

AKPC PSALM_

예수산책,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AKPC
마 16:24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WHOEVER WANTS TO BE MY DISCIPLE MUST DENY THEMSELVES AND TAKE UP THEIR CROSS AND FOLLOW ME."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목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이성민	seongminlee123@gmail.com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새가족팀장	박샤론	Sp9316@gmail.com
라이드팀장	김윤환	michaelsdogani@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TEL_ 512 454 1727
FAX_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FACEBOOK | AKPC 청년부
INSTAGRAM | @AKPC_PSALM

